

# 민주노총 총파업 선언, 지도부 삭발·농성 돌입

8 노동과세계 | © 승인 2009.07.22 01:49

쌍용차 사태 정부 해결·MB악법 저지 위한 대결전  
임성규위원장 "잘려나간 머리카락보다 존재가치 없는 MB정권"  
22~24일 총파업...25일 평택서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21일 총파업을 선언한 민주노총 지도부가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삭발식을 거행한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명익기자

민주노총이 쌍용차 경찰병력 투입을 규탄하며 올바른 쌍용자동차 정상화를 통한 총고용 쟁취와, 비정규직법·미디어법·최저임금법 등 MB악법 저지를 위해 총파업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3시 국회 인근 산업은행 앞에서 총파업 투쟁과 삭발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민주노총은 7월22일부로 모든 가맹산하 조직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고 전하고 "이번 총파업은 쌍용차 공권력 투입을 규탄하고, 올바른 쌍용자동차 정상화를 통한 총고용 쟁취를 위한 것이자, 비정규법과 미디어법, 최저임금법 등 이른바 MB악법을 반드시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 총파업은 민중의 피로 일궈낸 민주주의 후퇴를 막고, 모든 노동자 목숨과 삶을 지키기 위한 준엄한 투쟁"이라며 "모든 노동자가 자본 노예로 사느냐, 아니면 생존권과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누릴 것이냐는 이번 7월 대결전에 달린 만큼 어떤 상처와 희생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고 끈질기게 총파업이 지속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21일 총파업을 선언하고 삭발을 한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이 "이명박 정권은 오늘 잘려나간 머리 보다 가치가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임 위원장은 "정부가 MB악법과 쌍용자동차 등 현안을 계속 파국으로 몰아간다면,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권 퇴진투쟁을 비롯해 전면적 대정부 항쟁으로 나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이명박 정권과 자본 탐욕에 비해 노동자 민중 요구가 너무나 정당하고, 승리 순간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므로 우리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곧바로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 정의현 수석부위원장, 신승철 사무총장이 산별대표자와 지역본부장 등 가맹 산하조직 간부들을 등진 채 항의삭발식을 가졌다.

삭발 후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육체적으로 아무 고통 없는 삭발식을 단행하며 속으로는 가슴이 찢어지는 역사적 고통을 느꼈다"고 말하고 "이명박 정권은 오늘 잘려나간 머리카락보다 존재가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1일 총파업을 선언하고 삭발식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 지도부(오른쪽부터 정의현 수석부위원장, 임성규 위원장, 신승철 사무총장). 이명익기자

이어 "온갖 사기와 거짓을 일삼으며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반년도 채 안돼 용도 폐기된 이명박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와 전체 국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삭발을 단행했으며, 우리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의했다.

민주노총 총파업 선언과 지도부 삭발에 이어 언론노조 3차 총파업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민주노총은 22일부터 24일까지 총파업을 단행하고 25일 평택에서 쌍용차 사태를 규탄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에 앞서 21일 국회 앞에서 '비정규·미디어법·최저임금법 등 MB악법 저지! 쌍용차 정부해결 촉구! 민주노총 농성투쟁'이 시작됐다.

민주노총은 4박5일 간 국회에 상주하면서 일일 국회 동향에 따라 한나라당의원, 국회의장 등에 대한 실질적 압박투쟁을 전개한다.



20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가진 민주노총 신승철 사무총장이 삭발을 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 k11@nodong.org